

이슈 브리핑

● 친환경차 / 탄소중립

- (항공) CATL, 4톤급 전기 항공기 시험 비행 성공
- (EV) BeyonCa, 홍콩 첫 전기차 브랜드 출시 추진
- (EV) BYD, 유럽 내 전기차 판매 위해 리스업체 Ayvens와 협력

● 자율주행 / SW / 미래모빌리티

- (ADAS) 유럽, ADAS 기능을 의무화한 새로운 자동차 안전 규정 발표
- (자율주행) 중국, 자율주행 기술 보급을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
- (자율주행) Renault, 승용차와 대중교통차량의 자율주행 기술 연구 분리

● 글로벌 주요 부품사 동향

- (Gestamp) 美 미시간주 공장 설립 및 확장에 3.9억 달러 투자 발표
- (CATL) 상용 전기차 배터리 브랜드 및 배터리 출시
- (Forvia) Class 8 트럭의 고압 수소탱크 생산

친환경차 / 탄소중립

◆ (항공) CATL, 4톤급 전기 항공기 시험 비행 성공

- CATL*은 자사 고밀도 배터리를 탑재한 4톤급 전기 항공기의 시험 비행을 성공하였는데, 해당 배터리 셀의 에너지 밀도는 500Wh/kg로 전기차 평균 대비 2배 가량
- * 동사는 '23.7월 항공기 사업부를 신설하며 전기 항공기 개발에 뛰어들 바 있으며, 국영 항공기 제조사 COMAC 등과 관련 협업 진행 중
- 또한 CATL은 8톤급 상용 전기 항공기(운항거리 2,000~3,000km) 또한 개발 중으로 '27~'28년 이내 출시 목표

※ Electrek('24.6.25.) <https://electrek.co/2024/06/25/catl-successfully-tests-electric-plane-1800-mile-model-nears/>

◆ (EV) BeyonCa, 홍콩 첫 전기차 브랜드 출시 추진

- 中 프리미엄 전기차 스타트업 BeyonCa*는 제조 플랜트와 글로벌 HQ를 홍콩에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홍콩산 전기차 생산 비전 공개
- * Renault 중국법인 CEO인 Soh Weiming이 설립한 기업으로, Renault와 Dongfeng Motor 등이 투자
- 동사는 향후 1년 이내 첫 생산 모델을 선보일 계획으로, 이후 프리미엄 전기차의 주요 시장인 중국과 유럽을 타겟으로 사업에 나설 전망

* 당사는 '22.10월 AI 기반 스마트 콕핏을 장착한 컨셉카 'GT Opus 1' 공개한 바 있는데, 이는 실시간 혈압 모니터링과 원격 진단을 통해 운전자의 뇌졸중 등의 징후 발견시 자동으로 서행 또는 제동하는 기능 탑재

※ SCMP('24.6.29.) <https://www.scmp.com/business/china-business/article/3268513/beyonca-establish-first-made-hong-kong-car-brand-smart-electric-vehicle>

◆ (EV) BYD, 유럽 내 전기차 판매 위해 리스업체 Ayvens와 협력

- BYD는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해 Ayvens*와 업무협약(MoU)을 체결하였는데, Ayvens는 1년 이내에 30개 이상의 역내 기업을 대상으로 상용·소매 리스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
- * 프랑스 차량 리스·관리 기업으로 '23년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인 50만대의 xEV(BEV·PHEV·FCEV) 보유
- ** 프랑스·네덜란드·벨기에·룩셈부르크에서 우선 서비스를 출시하며 대상 차종은 승용차와 경량용차 등
- 유럽 전체 차량 판매량에서 법인 차량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점을 고려할 때 BYD가 이번 MoU를 통해 유럽 시장 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

* 환경단체 T&E에 따르면 법인 차량은 유럽 내 전체 차량 판매량의 60%의 비중을 차지하나 전기차 판매량에서는 14%의 비중으로 개인(15%) 대비 저조

※ Business Times('24.7.2.) <https://www.businesstimes.com.sg/companies-markets/transport-logistics/byd-seals-ev-pact-leasing-firm-ayvens-expand-europe>

◆ (ADAS) 유럽, ADAS 기능을 의무화한 새로운 자동차 안전 규정 발표

- 유럽위원회(EC)는 '24.7.7.부터 모든 유형의 신차는 지능형 속도 보조, 후방 감지 카메라 또는 센서, 운전자 졸음 경고, 비상 정지 신호, 사이버보안 방안을 탑재*해야 한다고 발표
 - * 차종에 따라서, 승용차·밴은 차선 유지 시스템, 차보행자·자전거 인식 자동 제동 시스템, 충격 기록 장치 의무화, 버스·트럭은 보행자·자전거 충돌 방지를 위한 감지 및 경고, 타이어 압력 모니터링 시스템 의무화
 - ** 이외에도 '24.7~'29.1월 동안 차량 유형에 따라 첨단 운전자 주의력 분산 경고 등 5개 규칙 점진적 도입 예정
- 유럽위원회는 이러한 안전 규정을 통해 '38년까지 1.5만명 이상의 생명을 구하고, 최소 14만명의 심각한 부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함
 - ※ European Commission('24.7.5.) https://single-market-economy.ec.europa.eu/news/mandatory-drivers-assistance-systems-expected-help-save-over-25000-lives-2038-2024-07-05_en

◆ (자율주행) 중국, 자율주행 기술 보급을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

- 베이징은 자율주행차 규정 초안*을 발표했으며, 상하이는 4개 기업에 대해 처음으로 안전운전자 없는 로보택시 일부 구간 무료 운영을 일시 허가하고**, 中 공업정보화부는 '자동차-도로-클라우드 통합' 시스템 시범 도시 20곳을 선정함
 - * 전기 버스, 승차 공유 서비스에 자율주행 차량 도입 및 관련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규정으로, '24.7.29.까지 의견 수렴
 - ** '24.7.4.~'25.1.4. 기간 동안 Baidu, Pony.ai, Auto X, Saika를 대상으로 205Km 구간 테스트 허가
- 이에 대해 中 언론사 Global Times는 中 자율주행 기술 정책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*
 - * 해당 언론사는 '24.1~'24.5월 자율주행 Lv.2 승용차 보급률이 50%를 넘었으며, 일부 기능은 Lv.3에 근접하다고 덧붙임
 - ※ Global Times('24.7.9.) <https://www.globaltimes.cn/page/202407/1315701.shtml>
 - South China Morning Post('24.7.1.) https://www.scmp.com/tech/policy/article/3268726/green-light-autonomous-vehicles-beijing-unveils-biggest-regulation-five-years?campaign=3268726&module=perpetual_scroll_0&pgtype=article

◆ (자율주행) Renault, 승용차와 대중교통차량의 자율주행 기술 연구 분리

- Renault Group은 승용차는 Lv.2*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집중하는 반면, 미니버스는 '20년대 이내에 Lv.4 자율주행 플랫폼 양산을 목표로 테스트** 중이라고 밝힘
 - * Lv.2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 등으로,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떼는 Lv.3는 모든 주행 상황에서 사용 불가, 관련 법안 미비, 높은 가격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선순위가 아님
 - ** 동사는 '24.5~6월 WeRide와 함께 프랑스에서 원격 감독자가 있는 자율주행 미니버스 첫 시연을 마쳤으며, '26년 EasyMile의 자율주행 기술을 채택하고 원격 감독자가 있는 미니버스를 프랑스 대중교통 노선에 배치할 계획
 - ※ Renault('24.7.9.) <https://www.renaultgroup.com/en/news-on-air/news/autonomous-vehicles-renault-group-opts-for-different-strategies-for-passenger-cars-and-public-transport-vehicles/>

◆ (Gestamp) 美 미시간주 공장 설립 및 확장에 3.9억 달러 투자 발표

- 스페인 자동차 부품사 Gestamp는 미시간주 공장에 3억 9,020만 달러를 투자해 신규 공장 설립 및 확장하고 있으며, 최대 580개의 일자리(체스터필드 390개)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됨
 - * 미시간경제개발공사(MEDC)에 따르면, Gestamp는 첼시, 메이슨, 라피어의 제조공장을 확장하고 있으며, 체스터필드에 6,450만 달러 투자해 45만㎡ 규모의 4공장을 건설 중임
- 이에 미시간전략기금(MSF)은 Gestamp의 투자 및 일자리 창출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성과 기반 보조금 500만 달러와 15년간 최대 450만 달러 상당의 100% SESA* 면제 혜택 승인
 - * State Essential Services Assessment: 주 필수 서비스 평가 프로그램으로, 적격제조개인재산(EMPP)에 대한 개인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데, 미시간에서는 일자리 창출 및 민간 투자를 유치하는 프로젝트의 경우, 조건에 따라 SESA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음
 - ※ Automotive News('24.7.10.) <https://www.autonews.com/automakers-suppliers/gm-supplier-gestamp-invest-390m-michigan>

◆ (CATL) 상용 전기차 배터리 브랜드 및 배터리 출시

- CATL은 물류 산업에서 다양한 시나리오 및 상용차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, 상용 전기차 배터리 브랜드 CATL TIANXING를 출시하고 경사용 전기차 배터리를 선보임
 - * CATL TIANXING-L: ①배터리 용량 140kWh에 주행거리 350km를 지원하고 12분 만에 60% 충전이 가능한 4C 급속 충전 버전과 ②배터리 용량 200kWh에 주행거리 500km를 지원하는 장거리 버전으로 출시
- 또한 TIANXING-L 배터리는 Geely, JAC 등 13개 자동차 제조업체의 21개 모델에 사용되며, 출시와 동시에 대량 생산에 성공하여 즉시 주문이 가능하다고 함
 - ※ CATL('24.7.4.) <https://www.catl.com/en/news/6267.html>

◆ (Forvia) Class 8 트럭의 고압 수소탱크 생산

- Forvia는 '18년부터 수소 기술에 4억 달러 이상 투자하고 있으며, 경쟁사의 동급 제품보다 두 배 높은 1만 PSI 압력의 수소탱크를 생산*하는데, Class 8 트럭의 고압 수소탱크 사업에 자동화 대량 생산 시스템을 적용해 생산 시간·비용을 절감했다고 밝힘
 - * '23년 수소탱크 1.1만 개를 공급했으며, '30년 연간 10만 개까지 생산을 확대할 계획임
 - ** 동사는 북미 Class 8 트럭 제조업체와 최소 2건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, 인근 지역의 탱크 제조공장 입지 평가 중
 - ※ Automotive News('24.7.7.) <https://www.autonews.com/mobility-report/forvias-hydrogen-tanks-lower-costs-add-range-class-8-trucks>